

[ 바둑 ]

“너 잘 만났다” LG배기왕전 한·중 ‘맞짱’

한국, 이창호·최철한·박영훈 등 3명 8강 입성
中, 구리·박문요·콩지에 8강행...日·대만 전멸

이창호, 최철한, 박영훈 9단이 이세돌의 공백을 메운다.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14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국내 랭킹 상위기사 이창호, 박영훈, 최철한이 모두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입성에 성공했다.

중국은 구리 9단, 차우윈 8단, 콩지에 7단, 박문요 5단이 8강에 올라 한중 대결 국면이 됐다. 일본은 총 4명이 출전해 본선1회전에서 하나나오키 9단, 이마무라 8단이 살아남았으나 결국 8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국의 선전에는 운도 따랐다. 프로 기사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덩 6 집반일 경우는 흑번을 선호한다. 한국은 32강전에서 15명 중 13명이 흑을 잡는데 이어, 16강전에서도 6명 중 5명이 흑을 잡았다. LG배는 풀가림에서 흑쪽을 택한 사람이 흑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2강전에서 중국 신예인 튀지아시 3단과 힘겨운 대결을 벌였던 이창호는 16강전에서는 일본의 신예 최강자인 이마무라 8단과의 첫 격돌에

서 매운 맛을 보여주며 8강에 안착했다.

박영훈 9단은 중반 120수의 굵김을 당하면서 검토실에서는 “더 이상 해볼 곳이 없다”는 불리한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박영훈은 중반 집요한 공격전을 벌인 끝에 전세를 뒤엎는데 성공했고 왕하오양 5단은 225수만에 돌을 거두었다.

최철한은 초반 불리한 국면에서 착실하게 득점을 해 나가며 스위에 4단을 제압했다. 최철한은 지난 해 LG배 32강전에서 만나 패했던 스위에 4단을 상대로 224수만에 백불계승을 거두면서 양강을 했다.

본선1회전에서 목진석 9단을 꺾고 가장 먼저 승리를 거두었던 구리는 이날 일본 본인방 타이틀 보유자인 하나나오키 9단의 항복을 받아내며 가장 먼저 8강에 안착했다.

승리를 거둔 구리는 “본선 1, 2회전 모두 비교적 순조롭게 이긴 것 같다. 오늘 대국은 초반 하나 9단이 실수를 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대국장소는 아주 좋았고 식사도 이미 익숙



지난 2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14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한국의 이창호·최철한·박영훈 등이 8강에 올랐다. 사진은 이창호(이창호)와 중국의 튀지아시의 16강전. (사이버포 제풍)

해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콩지에 7단도 강유택 2단의 기세를 잠재우며 구리에 이어 두 번째로 8강을 확정지었다. LG배 첫 출전으로 32강전에서 왕시 9단을 꺾고 파란을 일으켰던 대만의 천스위엔 8단은 차우윈 8단에게 패해 16강에 만족해야 했다.

박문요 5단은 허영호 6단을, 후야오위 8단은 원성진 9단을 각각 누르고, 8강에 합류했다.

대회 초반 돌풍을 몰고 왔던 허영호 6단과 강유택 2단 등 신예들은 피아오윈야오 중국 상위 랭커들을 맞아 선전했으나 부패,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이밖에 대만 대표 천스위엔도 중국 후원에 패했다. 이로써 일본 및 대만 기사들은 8강 대진표에서 전원 사라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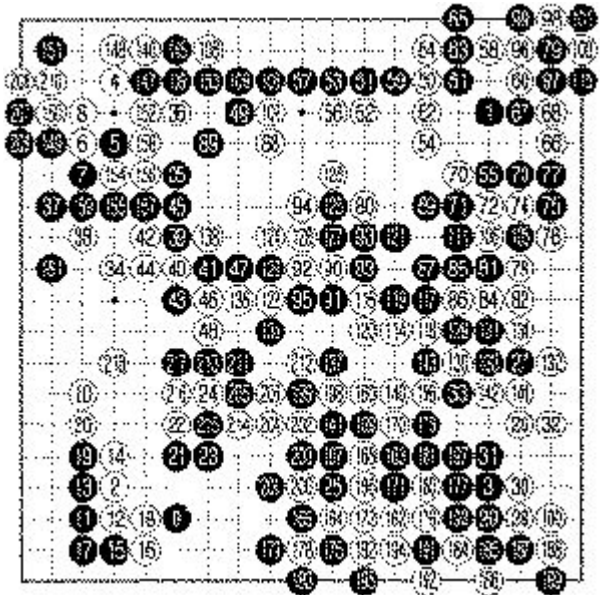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2억 5천만원 준우승상금은 8천만원이다.

이번 대회 8강전 및 준결승은 오는 11월 9일과 11일 각각 열린다. 대국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6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심재욱, 관록의 승리
최강부 준결승 2국 총보(1~218)
白 심재욱 6단 黑 기용성 5단



이 바둑은 한판의 승부에 있어서 수읽기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한판이 되었다.

기용성 5단이 상대를 그로키 상대로 몰아붙였다고 특이한 순간 우상귀 백 96로 옹크리는 카운터 한방에 그대로 결정타를 먹고 만 것이다.

조금만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단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수였다. 그러나 기용성 5단은 흑 79로 치중한 순간 백이 잡혔다고 속단한 것이 불행을 초래한 것이다.

반대로 심재욱 6단은 전국무대에서 술한 강자들과 진검승부를 해 온 관록을 살려 비수를 품안에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의 급수를 필러 반항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승부를 결정할 점은 역시 승부사다운 솜씨였다.

초반은 좌편에서 흑 37 등 이상 조합으로 손해를 자초한 기용성 5단이 불리하게 출발했는데 심재욱 6단이 자신감이 지나친 나머지 우상귀에서 백 58로 귀쪽을 달려간 수가 무리수가 되어 흑 59, 61의 불렬한 역습을 받아서는 흑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런데 기용성 5단이 흑 69로 둔수가 성급했다. 이 수로는 먼저 우상귀에 79에 두어 응수를 물어야 했다. 백 96로 전지대패가 나서서는 만사유의, 결승판 타켓은 심재욱의 차이가 되었다. 백 218수. 백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조훈현 9단, 스승 후지사와 추모



조훈현 9단(사진 가운데)이 스승의 장례식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조훈현은 지난 9일 일본 도쿄 고시사카와의 사할 덴츠인에서 거행된 후지사와 히데오 9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오타케 히데오 일본기원 이사장 등 일본기원의 프로기사와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조훈현의 실전 스승인 후지사와는 호쾌하고 화려한 기풍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던 프로기사이다. <일본기원 제공>

‘뜨거운 감자’ 이세돌

프로기사회 26일 총회 갖기로

‘2009 한국바둑리그’ 불참을 선언한 이세돌 9단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한국기원 프로기사회가 오는 26일 이세돌의 행보와 관련해 총회를 갖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총회는 한국기원의 방침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기사의 의견은 한국기원의 최고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대부분 채택된다.

이날 논의하게 될 안건은 ▲이세돌의 한국바둑리그 불참 ▲중국바둑리그에서 받는 대국료 중 5%를 기사회에 내지 않는 문제 ▲기보 저작권을 한국기원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이세돌이 불참하는 것 등이다.

올해 신안군은 팀 창단 조건으로 비공개 출신인 이세돌을 1지명으로 뽑는 것을 내걸었다.

- ①한국바둑리그 불참
②중리그 대국료 기부 거부
③기보 저작권 관리 거부

하지만 이세돌 9단은 불참을 통보했다.

기사회 기금을 내는 문제는 그동안의 관행이지만 이세돌은 중국바둑리그에 참가할 때 다른 기전처럼 한국기원이 대국 일정 편의 등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국기원이 기보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안이 이세돌만 이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말 한국바둑리그 이세돌이 9단이 불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제18회 光州盃
직장바둑대회

일시: 2009년 5월 24일(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기원 광주지원
(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문의: (062)220-0541, (062)675-3448

25일부터 16개 시·도 대항 '전국 장애인바둑대회'

국회 기우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16개 시·도 대항 전국장애인바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각 시·도 대표 3명씩을 선발해 시도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승수가 같은 사람끼리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을 해 승위를 가리는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각장애인 세계협회(2002년~2008년) 송중택 아마5단과 국회의원 특별대국, 국회기우회와 장애인바둑협회의 특별대국, 프로기사들과 국회의원, 장애인 및 봉사자들의 어울림대국 등의 특별이벤트도 마련된다. /광복기자 kroh@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만 추천합니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관리실용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매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본과 엄밀한 손본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분양(양도)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3,350평(예가78억)
• 보증금37억/월세3,000만원 용지12억
• 토지500평 건물1,500평(예가85억)
• 보증금7억/월세6,000만원(예가85억)
• 토지590평 건물750평(예가100억)
• 보증금40억/월세2,000만원 용지12억